

News

은행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 '친차만별'

매일경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금리가 은행마다 다르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적용 등 금리 조건도 제각각이어서 대출받을 때 꼼꼼한 비교가 필요
정부 보증 대출에 대해 은행들이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금리가 은행마다 적게는 0.29%포인트에서 최대 1.42%포인트까지

라임 배드뱅크 대주주 자리 신한금융이 총대 맨다

파이낸셜뉴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지난 26일 배드뱅크 출범을 위한 협상을 벌였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배드뱅크 대주주를 맡기로
이르면 이번주 출자 비율 등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금융당국의 심사와 승인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된다면 배드뱅크는 오는 8월쯤 설립될 것으로 전망

우리금융, 아주캐피탈 인수 또 미뤄질까

아시아투데이

아주캐피탈에 인수를 위해 조성된 펀드 만기일이 코앞...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은행이 아주캐피탈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인수 작업이 마
금융당국, 다가올 코로나19 위기를 고려해 M&A와 같은 외형확장에 나서기 보다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의 내실에 집중하기 바란다는 메시지...

하나금융, 열네번째 자회사로 더케이손해보험 안았다

이뉴스투데이

하나금융지주는 2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더케이손해보험 지분 70%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건의 승인을 획득
지난 1월 20일 이사회에서 더케이손해보험 인수 및 자회사 편입을 결의했고, 2월 14일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

초저금리 시대, '보험료 금리' 1% 시대 열렸다

머니투데이

0%대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보험회사의 예정이율도 처음으로 1%대로...국내에 보험사가 처음 설립된 1946년 이후 1%대 예정이율은 74년 만에 처음
삼성생명도 지난 1월 'GI플러스중신보험'을 출시하면서 예정이율을 1.9%로 낮춰...업계 1위의 이같은 행보는 다른 보험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재난지원금 현금화 '꼼수'? ...과잉진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 급증

동알일보

4대 손해보험사 따르면 5월 1~20일 일평균 실손보험 청구건수는 2만2,752건...3, 4월 각각 1만7,067건, 1만8,553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20~30% 증가한 수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미뤄왔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13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

'일감몰아주기' 고발 면한 미래에셋, 발행어음 속도낼 듯

이데일리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에 대해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3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
이번 공정위 제재에서 검찰 고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결정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적격성 심사 여부에 리스크를 해소

코로나19 여파에 4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 감소

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의 주식·회사채 발행실적은 11조4천719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6천436억원(28.8%) 감소...
주식 발행 규모는 IPO와 유상증자 모두 감소...전월보다 4천206억원(89.6%) 감소한 486억원...회사채 발행 규모는 11조4천233억원으로 전월 대비 27% 감소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

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

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